

여수박람회 유치 1년 ... 준비 실태와 향후 과제

# 랜드마크 규모 지역민 기대 부응할까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27일로 1년이 된다. 그러나 전남도의 최대 현안이 된 여수박람회 준비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박람회 기본계획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전남도와 여수시, 지역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민간기업 참여 기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실질적인 사후활용 방안 마련 등이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추진 과정=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해 유치 확정 이후 3월 박람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준비 전담조직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곧이어 설립됐다.

이어 박람회 종합 기본계획이 9월 수립됐으며 서울과 여수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박람회장 본격 조성공사 앞서 보상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박람회 관련 모든 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후 활용방안 보완 등 문제와 민자유치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 등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향후 과제=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랜드마크 건립이다. 기본계획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긴 하지만 그 규모를 대전 엑스포장에 세워진 한빛탑과 같이 대형(높이 100m) 상징물 건립해 여수박람회를 항구적으로 기입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수용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50m 높이의 시멘트 공장 사일로(저장탑)를 재활용한 스카이 타워(Sky Tower)는 예산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졸속 안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산 절감과 재활용이라는 취이에는 찬성하지만 저장탑의 노후 등 안



오는 27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1주년을 맞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 부족에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엑스포 성공 개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계획안 사후 활용 방안 미비점 많아 국가 차원 홍보 부족도 해결 숙제로

전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미지만큼 홍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수박람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역 경제의 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후 활용 극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내부 시설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하길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행사 개최가 무난한 수준에서의 시설에 중점을 두는 등 시각차가 크다.

전남도 등은 박람회 사후에 수익성 창출을 고려해 세계적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조성해 줄 것과 엑스포의 핵심 건축물인 한국관 및 다도해관, 엑스포타운 등을 한국 고유의 멋을 간직한 한옥양식으로 꾸며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예산 2조3천886억원 가운데 30%에 이르는 7천여억원을 민간투자 유치로 확보해 엑스포타운(2천333억원), 아쿠아리움(932억원) 등 주요 시설을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전남도와 여수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SOC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민자로 떠넘겨 국책 사업인지 지방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별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으나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일부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민자유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난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2010상해박람회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반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 차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는 여수 박람회의 사후 활용방안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을 민자로 해결하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U대회 유치 국고 지원을”

좌절 않고 도전하는 자세 격려해 줘야

강만수·유인촌 장관에

한나라 이정현 의원 요청



한나라당 이정현(사진) 의원은 지난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유치 비용 18억원의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광주시민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번 수준의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와 시민들이 한번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 자체를 정부는 오히려 격려해야 할 것”이라며 “여수 엑스포도 두 번째 도전에 성공했고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들이 전적으

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산과 지역기업인들의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 장관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유 장관은 “가능하면 낭비하지 않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서면질의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재탕·삼탕 사업이다. 70%가 이전에 해오던 계속 사업”이라며 “정부는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0조가 소요돼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MB정책 YS와 일란성 쌍둥이”

박지원 의원 장흥 특강서 밝혀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경제위기, 대북 강경책 등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장흥에서 진행된 비전한반도포럼 초청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닮아가는지 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햇볕정책



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진전이 있을 것이다”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더라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대북정책도 모두 잊

박자행보를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함께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것은 경제와 대북정책”이라며 “민생경제, 중소기업 지원, 대북문제에 매진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북문제에 이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압박해 오바마 시대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3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



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 할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신고 대상에 대북 전단 살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간 상호 비방 증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에 명시된 내용이고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군부대의 확장장치마저 철거됐는데,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또다시 남북한 간에 상호 비방·중상이 재현되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 전문의 성형수술은 안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구별법

<b>김영길 성형외과</b> ☎ 227-3777 9시~9시	<b>오형근 성형외과</b> ☎ 385-0909 9시~9시	<b>홍 수 성형외과</b> ☎ 234-7300 9시~9시
<b>조재현 성형외과</b> ☎ 226-6100 9시~9시	<b>김원석 성형외과</b> ☎ 385-7771 9시~9시	<b>신지훈 성형외과</b> ☎ 222-0222 9시~9시
<b>김조민 성형외과</b> ☎ 225-2119 9시~9시	<b>김철민 성형외과</b> ☎ 225-9777 9시~9시	<b>메카 성형외과</b> ☎ 222-3520 9시~9시
<b>최관필 성형외과</b> ☎ 226-8575 9시~9시	<b>류봉수 성형외과</b> ☎ 234-0009 9시~9시	<b>새 문 성형외과</b> ☎ 618-5100 9시~9시
<b>최석현 성형외과</b> ☎ 224-9900 9시~9시	<b>마동원 성형외과</b> ☎ 383-0375 9시~9시	<b>신세계 성형외과</b> ☎ 351-1114 9시~9시
<b>원대순 성형외과</b> ☎ 224-6803 9시~9시	<b>메디칼 성형외과</b> ☎ 362-0297 9시~9시	<b>광 호 성형외과</b> ☎ 223-7000 9시~9시
<b>김민호 성형외과</b> ☎ 375-4114 9시~9시	<b>직중순 성형외과</b> ☎ 226-3330 9시~9시	<b>광주형 성형외과</b> ☎ 363-7185-7 9시~9시